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열린 바자’ 성황리에 마쳐



23일(목)오전 11시에 개막되었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가 25일(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새 예배당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자신의 귀중한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헌신과 봉사로 하나가 된 3일 간이었다. 교회 앞

뜰부터 옥담층에까지 새 예배당에 벽돌 한 장을 쌓는 정성으로 바자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열기가 가득했으며 예상을 넘어선 참여도에 교회에는 활기와 기쁨이 넘치기도 했다.

한편 비전 2000운동 기간에 맞춰 성도들에 의해 초청된 지역 주민들과 전도대상자들이 바자를 통해 교회와 친숙하게 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바자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비전2000 오늘은 교구별 노방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교회당과 십자가는 흔히 눈에 띄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소식을 접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중에는 한 번도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있다. 비전2000운동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해보는 귀한 기회가 된다.

오늘 낮 예배 후에는 교구별 노방전도가 실시된다. 우리 중 아직 전도를 못해본 사람이 있다면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해 보자. 주님께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면 안드레처럼 “와 보라” 고만 외쳐 보자.

▶ 이번 주

주일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교구별)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환영회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비전2000 새벽기도회
매일: 비전2000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잃은 양 찾기, 태신자 전도

▶ 다음주

주일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부서별)

매일: 비전2000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잃은 양 찾기, 태신자전도

각 부서 소식

청년부 정기 총회

청년부에서는 18일(토) 제 5차 정기 총회를 열고 회장에 정치는 군, 부회장에 김영현 양을 각각 선출했다. 정부회장 선출 후 회칙개정과 청년부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놓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3을 위한 기도회

고등부에서는 11월 2일(주일)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3학

생 및 재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탁아부 학부모좌담회

탁아부에서는 10월 28일(화) 탁아부실에서 “자녀의 신앙교육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초청좌담회를 가진다. 강사는 이영희 집사(탁아부 지도),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모든 부모들이다. 이날 참여하는 영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 물질 흙이 되고 이 정성 돌이 되어...새 예배당 속히 짓게 하옵소서”

10월 17일 부터 23일까지 바자에 접수된 물품

접수번호	품목	수량	기증자(교구)
161	골프채 세트	1	무명(3)
162	적금통장	1	박일하(3)
163	의류	2	황태진 · 송명주(9)
164	구두	1	안득훈 · 김보순(11)
165	자수 액자 외	13	임상현 · 서희숙(12)
166	은수저	3	구홍환 · 이정자(5)
167	백두산 그림액자	1	홍정호 · 우선자(5)
168	의류 · 놀이기구	다수	김병숙(4)
169	의류	2	이종권
170	양복 · 주방기구	2 · 1	남미희(8)
171	다이아몬드반지	3	이민화(5)
172	통장	1	이민화(5)
173	양복 외	2	조명래(9)
174	홈세트	1	왕경래 · 김정희(11)
175	도자기 세트	1	홍중표 · 위성남(12)
176	액자	10	천기성 · 박천희(11)
177	주방용품 세트	5	백수남 · 김영희(5)
178	그림	6	이복규 · 한명순(10)
179	양말	160	무명(3)
180	의류	38	나갑열 · 임희분(2)
181	의류	3	고석창 · 정혜자(11)
182	사진 액자	1	무명(11)
183	주방기구 · 의류	1 · 10	강명신(8)
184	의류	4	박선자(11)
185	액자 · 의류	5 · 5	김연옥(2)
186	손목시계 · 의류	3 · 15	신순우(5)
187	금거북	10	나상민(12)
188	서류가방 외	51	나미용(12)
189	의류	10	왕경희(4)
190	금반지 외	6	송광호 · 장효옥(4)
191	세탁기	1	정치은(4)
192	비디오카메라 외	2	김영준 · 박태희(7)
193	금반지	2	김옥희(1)
194	금팔찌 외	5	이영기 · 이영숙(8)
195	주방기구	3	김하중 · 손재겸(5)
196	의류	1	최정숙(9)
197	돗자리 · 의류	1 · 30	이인근 · 오귀자(5)
198	캠음료	240	이강인 · 허숙(11)
199	주서기	1	이영주 · 최양혜(1)
200	의류	3	함송현(9)
201	의류	12	장형숙 · 송옥혜(9)
202	의류 외	18	김종자(6)
203	의류	100	이옥녀(4)
204	금	10	맹선재 · 황흔(2)
205	금반지 외	14	김영주 · 이해순(2)
206	신발	1	김유경(2)
207	주방기구	2	송인순(8)
208	양털시트카바	1	김용호 · 한진석(2)
209	핸드백 · 벨트	170	김용숙(10)
210	도자기	2	김상철 · 최원자(4)

접수번호	품목	수량	기증자(교구)
211	골프용품 외	14	무명(1)
212	옷감	4	무명(1)
213	의류 외	24	안창희 · 정봉금(5)
214	이동통신기기 외	200	송인권 · 윤숙지(11)
215	의류 외	24	김세하 · 김삼옥(3)
216	양복 · 액자	4 · 3	이종윤 · 홍순복
217	의류	12	임송자(1)
218	골프화 외	6	남궁현(4)
219	전화기	1	노애리(3)
220	그림액자 · 도자기	2 · 1	나종영 · 이은희(1)
221	그림액자 · 성구판	1 · 1	나희주 · 박윤혜(7)
222	귀금속	11	김세재 · 이운진(4)
223	침구 외	15	최경애(9)
224	회충약 · 좁약	필요량	정동호 · 김정임(3)
225	비누세트	5	김태기 · 윤문자(4)
226	원두커피세트	1	조웅식 · 유명석(4)
227	그림액자	2	고아라(3)
228	의류	2	김규성 · 정현숙(3)
229	금 · 무비카메라 외	1 · 3	정용철 · 김윤자(3)
230	조각작품	1	김인숙(4)
231	금목걸이	3	이인수 · 나기태(12)
232	주방용품	2	김진영(12)
233	금팔찌	10	최영순(1)
234	시계 · 의류	1 · 1	이보우 · 서옥덕(4)
235	의류	1	무명(9)
236	가방 · 의류	7 · 17	김만선 · 김영연(9)
237	의류	10	김일용 · 김옥남(5)
238	주방용품	2	정은호(1)
239	의류	4	류재순 · 최난주(4)
240	가구	1	김병호 · 김현주(1)
241	의류	1	홍광숙(4)
242	액세서리	1	박근지 · 김진희(2)
243	의류	10	강승일 · 김우숙(2)
244	테니스라켓 외	3	박용봉 · 김정운(3)
245	홈세트	1	송인권 · 윤숙지(11)
246	탁상시계 외	3	소병국 · 심화숙(3)
247	가방 외	5	임윤자(7)
248	귀금속	25	무명
249	의류	6	허정자(7)
250	가전제품	5	오광환 · 이안순(12)
251	건강식품	11	유을상(4)
252	의류	10	왕경래 · 김정희(11)
253	의류	100	김복순 · 정동학(7)
254	도자기 외	12	박정규 · 정영택(2)
255	화장품	686	신용식 · 김진영(10)
256	패종시계 외	22	오형철 · 신동기(3)
257	양복	3	이계홍 · 성순자(5)
258	동양화 외	29	탁경준 · 전정숙(5)
259	의류 외	3	김봉환 · 문형미(4)
260	그림 액자	1	고윤화(2)

접수번호	품목	수량	기증자(교구)
261	의류 외	15	서춘식 · 김진숙(9)
262	금 · 망원경	5 · 2	이상호 · 김차순(7)
263	귀금속 외	3	송영강(4)
264	앨범	30	고후덕(2)
265	의류	8	이민화(5)
266	의류	20	오도식 · 금용숙(1)
267	의류 외	25	최정환 · 윤금자(1)
268	도자기	5	박철환 · 이정희(11)
269	대형시계	1	박정선 · 김남순(11)
270	오디오 세트	1	김병상 · 김정수(11)
271	김치 · 액세서리	100 · 1	홍승권 · 황정임(3)
272	금반지	2	최차순 · 백혜숙(4)
273	주방용품 · 의류	1 · 12	김재석(3)
274	토종꿀 외	5	김태기 · 윤문자(4)
275	송이버섯 · 은수저	1 · 2	전철금
276	금반지 외	8	최종시 · 최길옥(12)
278	금반지 · 마이올린	1 · 1	무명(3)
279	A4 복사용지	100	박두호 · 한성옥(7)
280	원형탁자 외	5	윤봉준 · 김명화(9)
281	금반지	5	최용걸 · 최일춘(12)
282	귀금속	5	이정수 · 김미경(3)
283	가족지갑 외	22	이병진 · 조미영(4)
284	전화기	1	최재규 · 천정화(11)
285	금목걸이	6	무명
286	금열쇠	1	무명(타교회)
287	금열쇠	1	이남호 · 여옥기(12)
288	동양화	2	김태기 · 윤문자(4)
289	금반지 · 의류	2 · 4	윤찬오 · 홍계식(3)
290	양말	39	이주희(2)
291	건강침구	208	황정옥 · 주경자(1)
292	약기	1	김명옥 · 오현상(4)
293	그림액자	1	한충현 · 이운정(1)
294	적금통장	1	정병무 · 박경희(2)
295	보험증권	1	김태기 · 윤문자(4)
296	보험증권	1	강신규 · 김지숙(4)
297	적금통장	1	박길하
298	적금통장	1	이민화(5)
299	주택채권	1	한길동 · 박영옥(4)
300	도자기 외	4	하영수 · 박정순(2)
301	흰떡 · 호박죽	필요량	김용호 · 한권석(2)
302	의류	1	최문선(2)
303	의류	1	김명신(2)
304	건강기구	5	허상환 · 최재춘(2)
305	우산 외	6	하영수 · 박정순(2)
306	의류 · 식기세트	10 · 1	최차순 · 백혜숙(4)
307	운동기구	4	김종운 · 김혜영(11)
308	침구세트	1	곽선자(11)
309	스탠드 외	30	유순화
310	적금통장	1	오유식 · 이봉규(2)

접수목록은 헌물에 한하였으며 건축헌금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교회와 국가”

이 글은 10월 20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조순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강의요지: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된 이익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교회는 신앙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기구입니다. 이 두 기구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와 교인이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개인구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환경문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윤리회복,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해 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며 또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각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운 목사: 후보께서 하신 강연 내용 중 종교의 목적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의구현, 윤리회복, 환경보호 등을 사회구원적인 요소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개인구원에 대한 후보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후보: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무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우주의 오묘한 조화와 인간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신의 섭리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식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으나 성경을 읽기도 하며 공자나 맹자의 사상 등도 늘 접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정치·경제·사회의 무너져 내리는 틀을 바로잡는 일에 기여하겠다는 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하신 강연 내용 중 국가의 지도자가 특정 종교를 갖지 않음으로 해서 절대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모든 종교가 평등한 종교를 누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비약하자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지도자는 종교간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편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지요?

▶종교가 없음으로 해서 모든 종교를 중립적 입장에서 동등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면도 있으나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른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공평과

정의의 마음으로 정치를 할 것이고 바른 신앙에 기초하여 사회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후보께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교시협의회가 있어 큰 일을 결정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조언도 듣고 교회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면서 전도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많이 읽고 목사님들의 조언도 따르며 자기성찰을 위한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70년대까지 미신적 요소를 타파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 미신행위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미신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점술이나 무속 등이 점증하고 있는 현상은 아마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신이 타파되려면 먼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이 실력에 의해 인정받으며 각자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타종교와의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군목 수를 감축하고 군승, 군신부 수는 증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종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회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창설된 군목제도임에 틀림없는데 이를 과소평가 내지는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소리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25동란 때 저는 6년 간 군대생활을 했고 당시 군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군목제도의 기여도와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군목 수의 조정은 사회 발전 양상과 관계에 따라 점차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 지도자는 기독교계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정책, 취업문제, 복지문제에 대한 귀하의 복안은 무엇이며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정책이 있으시

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회의 문화적 질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소련이 1등을 하지만 장애인올림픽에서는 미국이 1등을 차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으로 있을 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예산을 4%에서 6%로 높여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도 정상인과 동일한 사회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교계의 활발한 논의가 지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이트 교도소는 재범율이 지난 10년 동안 5%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와의 전쟁 선언보다는 사랑으로 교화하기 위해 사설 종교교도소 제도를 도입할 뜻은 없는지요?

▶교회가 교도 사업을 위해 자금을 대고 인력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이를 잘 영위해 나간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바른 교도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는 국가의 교도방침과 교회의 교도방침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하신다면 교회와 기독교인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나라 개화기에서 양문물을 전해 주었으며 기독교적 사상은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했습니다. 또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시대 때 나라를 지탱하고 국민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구의 합리적 사상을 배우게 하였고 성경 배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맹율을 저하시켰고 교육기관을 세워 한국 교육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교회가 이같이 국가에 기여해 온 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회에 잘 구현하고 애국심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가 국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가족이 되고 보니

“선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민마리아(새가족)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해 온 많은 전도 사역, 해외선교활동, 말씀훈련, 성도들과의 교제... 그러나 저는 뿌리 없고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민음으로 타성에 젖어 어떤 능력도 찾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말로는 타일러도 개선이 없자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기를 365일 그리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는 ‘어쩌면 저리도 눈물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 외엔 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리고 미숙하기만 했습니다.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이 행복인줄 알았던 제게 어머니는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가 겪어야 할 고통을 알려 주시며 참고 견디는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제 생활에 어려움은 계속 되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기쁨이 내 속에서 샘처럼 솟아났던 것은 주님께 소망의 눈물로 드린 어머니의 저를 위한 쉬지 않는 기도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멸망치 않으리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던 제가 서울교회 문턱을 넘어선 이후 매번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사랑의 어머니, 막연하게 감사하던 일들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목사님

의 말씀... 그 무엇 하나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겐 이제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권면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좀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하는 작은 소원을 버리지 않으렵니다.

이토록 간절히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생수의 말씀으로 더러워지고 메말랐던 제 마음에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과 어머니, 주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 환영회



* 10월의 새가족 *

이미연 강영하 홍남옥 김창호 이주운
유혜영 이의찬 김승배 권은영 김경희
박옥희 이명화 강성원 김민경 조미환
임숙자 유정임 선민식 김동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7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최형열	최정일	양영희	김명일 김압득
김숙자	권순자 김채봉 최옥자	김현주	김대용 김태혁 김필순
	윤연순		곽영심 탁신위
오연승	오연승	강희자	강희성 정재희 천무자
송두심	송숙자 서민희 송경숙		강연자
	조인자	최경애	김의섭 성철홍
오정수	양계원 김주용 조정도	최정숙	박용목 채영이 박해원
	김재한 왕선희 조주인		박광원 박성원
	한주원	송옥례	강형숙
이해순	김덕주 신대천 박병수	이점숙	조대한 김명자 최광준
	유원일 어머니		윤옥현
김선희	한상화 박혜영 박혜영	김선미	김종명 원주자
	박춘원	김양숙	김태평 김용수 김선희
이봉규	박주홍 이유배	조정숙	조운행 장동숙 조성옥
장병무	서영호 박승표 정난영		강복례
	이정희 박영규 정재영	이점숙	서명원 조문현 윤상희
	심영호 정지영 정달상		지준석
	서정자 정 현 정병인	김구진	김성도 이무남 김학술
신아라	고기성 고백석 김선규	전정순	전영희 김현주 김형진
	강보경		전영재
강보경	윤용호 유상미	황정화	예인수 예혁준
심재을	허규택 심재수 심원경	무 명	이일흙 이한용
	안 평	김 진	김종국 김 은 김소신
최죽희	이하영 황영구 박종익		김윤창
	최철준	허인숙	허상아
강인희	홍병수 강미희 홍영운	손성운	심기택
김금준	심성섭 천정규 장미순	무 명	윤봉환 원상연 김종철
	강경림		설국태
김세재	김세철 김화순	무 명	이두연 김은숙 이정각
이영숙	김삼자 김용순 권상민	무 명	이하라
	김용국 원용화	무 명	안영철
조춘택	이정애 구 홍 홍성원	무 명	임복순
	조춘자	무 명	안송이 안성혁
원복순	백복현 임숙자 백승민	무 명	최춘자
	공연옥 이강민 양남순	무 명	김재범
	이제상 이영경	무 명	황병완

○... 태신자카드는 97비전2000운동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주일·II·III부 예배 헌금시간이나 예배일 입구의 헌금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화) 성결교회 교회 목회자세미나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목회”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31일(금)에는 연

세대기독인 총동문회(대표회장 이종운) 임원회를 주관한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직 말씀 · 오직 은혜 ·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2.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4. 새가족들의 신앙성장과 교회적응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